〔韓國造景學會誌, Vol. 22, No. 4 pp. 23～36, 1995年 1月〕

'景'과 관련 述語의 槪念에 관한 考察: 관련된 漢字語의 解釋을 중심으로

黃 琪 源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造景學科

The Concepts of the *Landscape* : An Interpretation of related Chinese Characters

Hwang, Kee-W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crutinizing the etymological meanings and literal usages of the term *Gyung* per se so as to clarify the traditional concepts formualted in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Related classical dictionaries and literatures in Korea and China were consulted intensively.

Strictly speaking, the compound word *gyung-gwan*(景觀) composed of *gyung*(景: seen objects) and *gwan*(觀:seeing) in terms of word formation is not the synonym of the English term *Landscape*.

The Chinese character *Gyung*(景) composed of the character *il*(日:the Sun) and the character *gyung*(京: royal palace or capital city) originally indicated a brilliant and beautiful view of the capital city seen in a clear and bright daylight. Thereafter this ideographic letter had been used to indicate an unusual view which is aesthetically outstanding and can be used as a typical landscape schema or a model.

Due to intrinsic nature of this kind of view, the meanings of *gyung* had been extended connotativelly as well as denotativelly: the meanings worthy of note in terms of landscape studies are 1)a visible object which places som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rom the observer; 2)the scene or the backdrop of a theater, 3)a defined vista.

With these in mind, meanings and usages of related terms as *Kwang*(光:light or bright), *Pung*(風:wind or fresh), *Chi*(致:fine), *Mul*(物:object or world), *Gae*(槪:general), *Seung*(勝:outstanding or surpassing), *Saek*(色: color or colorful), which had produced diversified and delicate connotations through compounding with the etymon Gyung, were reviewed.

Ⅰ. 序 論

1. 연구의 목적

모든 말은 특히 그것이 하나의 名辭(term)라면 어떤 槪念(concept)을 가리킨다. 개념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을 통일화한 것이다. 그러나 개념은 하루아침에 어느 사람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보태어지고 섞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 바로 景觀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이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景觀이라는 말은 매우 익숙한 말이면서도 그 뜻이 다의적이기 때문에 난해한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의 뜻은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니, 때로는 경치로도 이해되고, 때로는 환경으로도 이해되며, 때로는 생태계로도 이해되고, 때로는 장소나 공간이나 지역으로도 이해된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초보자들이나 애호가들은 landscape을 바로 조경이라고도 이해한다.[1]

그래서 경관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多義性을 바탕으로 하여 각 개념들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 보거나, 여러 개념간의 관계를 파헤쳐 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경관의 다의성은 대체로 景致, 土地, 場所, 環境, 造景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그 형성에 작용한 문화적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맞고, 나머지는 틀린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개념을 골고루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의 경향을 보면 주로 영어 landscape이나 독일어 Landschaft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 이 말들과 한자어 景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2]

그런데 서양에서 landscape이나 Landschaft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 의미가 설정되던 시기에 동양에서는 景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옛날에는 景觀이라는 말 대신에 景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는 것이다.

지금 쓰는 술어인 景觀은 景과 觀이라는 單詞로 구성되어 있는 複詞이다. 이때 景은 대상이고, 觀은 행위를 가리키니 景觀은 "보는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관 연구에 있어 景과 觀을 분리하여 고찰해 보는 것은 경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3]

그런데 景이라는 말의 語源이나 用例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景이 아니라 이미 觀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개념임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썼던 景은 현대의 景觀에서 觀의 행위가 내재하지만 표시만 되지 않은 개념임인 것이다.

觀과 분리시킨 상태의 景, 즉 대상이라는 위상만 가지는 景은 좁은 의미를 가지는데, 대상이라는 위상을 가지는 景은 보는 觀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드러난다. 觀은 인간이 어떤

---

1) '景觀의 多義性'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黃琪源(1989)을 참조할 것. '景觀'은 대체로 보기 좋고, 또 보아서 즐거운 '景致'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말들을 잘 따져보면 함정이 있음을 보게 된다. 景觀이라는 말은 繪畵에서는 주로 景致(landschap/scenery)라고 해석되는 한편, 造景(landscape architecture)에서는 주로 인간의 실제 생활의 場을 操作하는 목적이자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土地經濟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原生 상태의 土地가 아니고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耕作'되어 그 형질이 '變化'되고 그 가치가 '增進'된 土地, 무한히 연속된 지표면도 아니고, 임의로 구획된 토지도 아니고, 내부의 耕作행위와 形質변화와 價値증진에 의해서 비로소 그 범역이 뚜렷이 '限定된' 일단의 土地(landscape)를 가리킨다. 또 地理學에서는 예술이나 설계분야의 개념과는 달리 지표상의 물리적·문화적 특성이 결집된 일단의 地域(region)으로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생태학적 접근방법이 도입되면서 경관은 사실상 환경이나 생태계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으며, 환경심리학·정신물리학·현상학Δ기호학 등 인접분야의 이론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경관은 공간, 장소, 지역 등과 동의어로도 쓰이고 있다.

2) landscape나 Landschaft는land와 -scape 또는 -schaft의 합성어로서 토지의 군집, 토지의 체계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J.B. Jackson, 1984:1-8).그렇다고 해서 land와 景이,-scape 또는 -schaft가 觀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왜냐 하면 landscape의 이러한 어원적 의미가 후세에 와서 "scner"(경치)를 뜻하게 되었는데 이 뜻이 景觀이라는 말의 뜻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3) 彭一岡(1989: 36-38)은 중국 원림에서 景을 다룰 때에 어느 지점에서 위치한 觀者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景을 '보는 景(觀景)'이라고 하고, 그 관자가 위치한 자리 전체가 다른 지점에서 거꾸로 보여질 때 이를 '보여지는 경(景觀)'이라고 개념짓고 있다. 이 개념은 보여지는 것(被看)과 보는 것(看)의 관계와, 景과 觀을 분리하는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좋은 예이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바깥세상을 보는 행위이니, 景은 의도를 가진 인간이 인식하는 바깥세상의 모습이자, 현상인 것이다. 觀이라는 글자는 황새가 먹이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본 뜬 것(權智庸, 1980: 264)이라는 유래를 알면 그 뜻이 저절로 분명하다.

이 연구는 이런 현상에 착안하여 景이라는 한자어의 어원과 그 용례를 주로 고찰하되,景과 더불어 많이 쓰였던 한자어인 光, 風, 致, 物, 槪, 勝, 色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2. 연구의 방법

모든 말에는 語源이 있으며, 그 어원은 그 말이 지시하는 개념들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개념의 다의적 구조를 단순화하여 그 원형을 도출해 낸다는 의의가 있다.

이 고찰에서 적용되는 연구 방법론은 옛 문헌을 통해 옛 문화를 이해하는 文獻學(philology)과, 그것의 한 영역인 낱말의 기원과 그 역사를 연구하는 語源論(etymology)에 속한다. 그리고 "낱말의 역사, 특히 의미 변화를 조사하여 사회, 기술, 제도, 종교 등 역사적 현실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歷史的 語源論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찰의 대상은 語源核(etymon)이 되는 말인 景이다(金芳漢, 1990: 19-24).

그리고 用例를 살펴보는 것은 그 원형적 개념이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 왔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으로서, 현대의 개념에 중첩되어 있는 다의성을 낱낱이 해석해 보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용례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1)한자의 어원 및 용례에 관한 고전 사전류와 2)중국과 한국의 옛날 시 또는 시조 등이다. 그 출처는 각 인용문의 注에서 명시된다.

연구 대상이 한자어이므로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서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라는 漢字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洪寅杓, 1976).

모든 문자체계는 일관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사회 안에서 공인된 의미와 발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순서 또한 말의 순서와 합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대단히 오랜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문자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표하는 表形期에서 출발하여 점차 지시개념과 사고를 진술하는 表意期를 거쳐 비로소 음표로 의미를 표현하는 表音期로 발전한다.

특히 한자는 표형과 표의가 그 특징인 바, 이들 문자가 처음 생겨난 과정을 추적해 보면 그 의미의 원형을 도출해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서양문화가 수용되는 근대화 이전의 전통문화에서 사용하던 의미의 전형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Ⅱ. 解 釋

1. 景의 語源

1) 서울 하늘에 해가 높이 뜬 景

景이라는 글자를 분해해 보면 日(해)와 京(서울)을 합한 회의·형성문자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日이 京 위에 올라가 있음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래서 景은 바로 "서울 하늘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京이라는 글자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알고 보면 景의 뜻이 더 정확하게 해석된다. 즉 京은 높은(高) 터전(小←丘=언덕)에 크게 지은 궁전의 모양을 본뜬 회의·상형·전주문자이다(權智庸: 40, 158).

고대 중국에서는 역대로 수많은 나라들이 출몰하였는데, 지배자의 궁전은 이와 같이 지었던 것 같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도 지배자의 건물은 흙으로 높게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지었으니 이는 습기를 막는 실용성 뿐 아니라 위엄을 높이는 상징성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식이었다.[4]

4) 고대 중국의 궁궐에는 흙을 높이 쌓고 꼭대기를 평평하게 만들어 그 위에서 사방을 조망하던 시설이 있었다. 이것을 臺라고 한다. 원래 건물이 없이 흙을 높이 돋우고 윗면을 평평하게 다듬은 平臺가 원형이지만 그 위에 지은 건물까지 포함하기도 한다.(儲椒釐生·陳樟德, 1988:55).
역사상에 나타나는 저명한 것으로는 朱 武王이 조영한 靈臺(詩經,靈臺), 秦始皇이 조영한 鴻臺, 漢武帝가 조영한 上林園 안의 神明臺 등이다(張家驥, 1985:25-34).

게다가 이런 건물들이 모여서 이루게 된 왕궁은 왕성 일대의 지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취하여 세웠으니 산기슭이나 언덕 위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역대 왕조의 서울은 평지에 있는 것이 많았지만 궁전은 그 평지 안에서도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짓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높게 지었으니, 이 뜻을 이해할 만하다.[5]

이와 같이 지배자의 궁전이 고지에 놓이게 되는 예는 서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고대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이 있는 지역에 베풀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부족들이 언덕을 하나씩 차지하고 그들의 궁전을 지었다고 한다. 그 언덕 중의 하나가 Palatinus인데, 이곳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택을 지었으며 이를 다른 황제들이 답습하였다.

네로황제가 이 언덕에 있던 민간주택을 모조리 철거하고 그곳에 황궁을 짓고 Palatium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여기에서 궁전을 뜻하는 palace(영), palais(불), palazzo(이)과 같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이 나중에 유럽의 왕궁이나 황궁을 짓는 전통이 되었다(W.W. Skeat,1983:423).

이처럼 景은 해가 궁전 위에 높이 떠서 비치는 것을 상형하는 글자로서, 전주에 의해 '햇빛(日光)', '밝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또 이것은 햇빛에 비친 궁전의 모습이 볼 만하다 하여 '경치'를 뜻하기도 한다.

이 어원을 통해 그 원래 뜻이 상당히 명백해졌으니 景은 "서울 하늘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일 뿐 아니라, "서울의 핵심인 왕궁의 하늘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제 이러한 경관을 연상해 보자. 예를 들어 통일 신라의 서울 도성 안에는 여염집들이 거의 다 기와집이었다고 하니, 그 중에서 왕궁은 더 크고 더 화려한 기와집이었을 것이다. 또 조선시대 때 한양처럼 초가집이 많았던 시절의 왕궁은 더욱더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듯 몹시 크고 화려한 기와집, 대궐이었을 것이다.

왕성 안의 중심축을 따라가서 가장 끝에 버티고 서 있는 대궐은 해를 향해 정면을 내세우니 당당하고 양양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 반짝이는 기와와 단청과 기치창검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 수조차 없을 만큼 화려하고 양명하였을 것이다.[6]

이것이 바로 景이라는 말의 어원이고 유래이다.

---

5) 예를 들어 西安은 주 무왕때 왕도인 鎬京에서 비롯하여 천 여 년 간 長安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대 왕도이었는데, 한대에 지은 왕궁인 未央宮은 도성의 서남쪽 높은 곳에 자리잡고 성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며, 당대에 지은 왕궁인 大明宮 역시 지세가 높아 전망이 좋고 쾌적한 곳이었다고 한다.
이 점은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桓雄이 태백산 꼭대기 神壇樹 아래에 내려와 神市를 열었다고 하니, 그 위치가 산기슭이었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 고조선시대에는 마을마다 높이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그 天壇의 흔적이 강화도 마니산 塹城壇에 남아 있다.
고구려시대에 이르러 강이 흐르고 있는 높은 산 사이의 완경사지에 궁성을 쌓고 가까운 뒷산의 지세를 활용하여 수비용 산성을 이어 쌓는 방식이 정착되었다고 하니, 평양 근교 大聖山 남쪽 기슭에 長壽王이 安鶴宮을 짓고 그 뒷산에 大聖山城을 쌓은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런 형식은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을 이어 내려 오면서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도성계획의 기본형이 되었다. 서울에 남아 있는 백제의 몽촌토성, 조선의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모두 산기슭에 베푼 궁전이다. 평야에 베푼 왕궁도 주변 지역보다는 높은 곳에 자리잡게 마련이었으니, 신라의 왕도이었던 경주 반월성이 바로 그런 형국이다. 백제의 서동왕자가 무왕이 되어 잠시 서울을 옮겼던 터라고 하는 전북 익산군 왕궁면의 궁전터를 보면 주위의 평야보다 제법 높은 곳이다.

6) 궁궐 건축에서 정전을 이루는 것은 堂이라는 건축 형식이다. 원래 "堂은 궁실의 정옥으로서 정사와 행사를 행하는 곳(堂是 宮室之正屋 所以爲治事及行禮之地者也)"이라고 하였다(儲椒生・陳樟德, 1988: 83). "흙(土)을 높이(尙) 돋우고 그 위에 지은 집"을 상형하고 있어, 대개 기단 위에 짓거나 층고나 지붕을 높이거나 하여 입면이 높은 형태를 취하는 건물이다(Tsu, 1988: 77-88; 儲椒生・陳樟德:83). 그리고 計成(1634)의 『園冶・屋宇』에 의하면 "堂은 주가 되고 중심이 되며 남향하는 집을 일컬으니, 당당하고 높고 드러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堂者 當也. 謂當正向陽之屋 以取堂堂高顯之義)"라고 하여, 남향하여 양명한 기운을 받는 위치, 그리고 주변 건물이나 대지의 중심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높고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는 용도의 건물 양식으로 쓰였다.

2) 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는 景

謙齋 鄭敾(1676—1759)은 만년에 한양 일대에 거주하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 작품 중에서 景의 용례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 있으니,한양 도성의 도시경관을 완숙한 필치로 묘사한 眞景山水이다(鄭良謨, 1986).

「長安煙雨」(장안에 가득 찬 안개비)라는 (그림 1)을 보면 중국의 역대 왕도로서 손꼽히는 長安에 못지 않게 수려한 왕도인 한양에 고운 안개비가 내리는데, 멀리 남산이 우뚝 솟았고 더 멀리 서울을 둘러싼 산들이 아스라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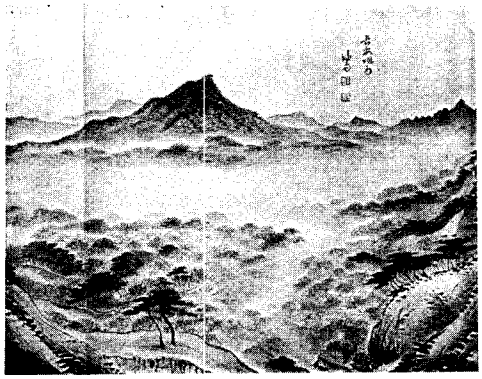
그림의 중경이 바로 여염집들이 모인 도성 안의 거리와 동네인데, 안개비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평화롭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화면에 가득 찬다.

근경으로 다가올수록 나무와 집들이 하나 둘 드러나지만 바로 눈앞에 있어 뚜렷하게 보이는 바위와 소나무를 빼면 이 역시 안개비에 묻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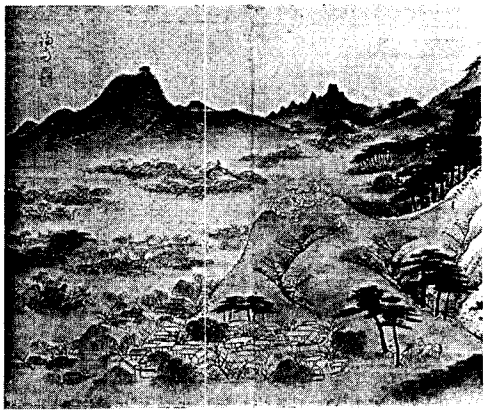
정선은 아마 인왕산인 것으로 추정되는 산 위에 올라 왕도를 내려다보며 하늘 아래 펼쳐진 도성의 전경을 그린 것이 분명하다. 왕궁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왕궁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진 왕도의 단정하고도 화려하고도 우아한 景이 정선의 눈길을 잡고 마음을 빼앗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는 이보다 더욱 景을 구경하는 풍류가 한결 더 분명하다. 「壯洞春色」(장동에서 보는 봄 풍경)이라고 이름 붙였으니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옆의 언덕에 올라간 정선은 멀리 비봉을 원경으로 하여 왕궁과 이웃하여 인왕산 기슭에 베풀어진 아늑한 동네의 봄 경치를 그린 것이다.[7]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언덕배기에 올라가 정선처럼 봄 경치를 즐기는 선비들이다. 그들은 바로 해가 높이 떠 있는 왕성의 모습인 景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謙齋 鄭敾 의 「長安烟雨」
(출처: 鄭良謨, 1986, 20)



(그림 2) 謙齋 鄭敾의 「壯洞春色」
(출처: 鄭良謨, 1986, 24)

漢陽을 長安이라고 한 것처럼 근처의 산에 올라 왕도를 바라보는 풍류는 중국에서 배워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겸재보다 1,200년이나 앞서 태어난 중국 시인 謝朓(464—499)가 지은 「晩登三山 還望京邑」(저녁 무렵 삼산에 올라 서울을 돌이켜 바라보다)이라는 시를 읊어 보자.[8]

灞水望長安 파수에서 장안을 바라봤지
河陽視京縣 하양에서 수도를 쳐다봤지

7) 이 그림에서 멀리 보이는 산을 李泰浩(鄭良謨,1986:210)는 비봉이라고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 남산을 중경으로, 관악산을 원경으로 한 구도인 것으로도 추정된다. 이 그림을 그린 자리를 찾고 구도를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지명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8) 謝朓는 귀족 출신으로서 청년 시대에 이미 문명을 날렸다. 그는 사령운의 산수의 시풍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경치를 훌륭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작품 속에서 그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白日麗飛甍 태양이 높다란 용마루에 빛나니
參差皆可見 올망졸망한 지붕이 모두 보인다
餘霞散成綺 남은 놀은 흩어지어 고운 비단
澄江靜如練 맑은 강은 조용하기 누인 명주
喧鳥覆春洲 봄빛 어린 섬에는 재잘거리는 새
雜英滿芳甸 향내나는 들에는 흐드러지는 꽃

그 일부가 소개된 이 시에서 京邑은 南齊의 왕경인 建康(현 남경)이고, 三山은 약 35㎞ 떨어진 거리에 있는 양자강변의 세 봉우리를 일컫는다. 저녁 무렵에 산에 올라 경읍을 돌아보면서 석양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상찬한 시이다(池榮在, 1989: 226-227).

왕도 안에 있는 수많은 여염집들의 올망졸망한 지붕들이 모두 보이는데 그 위로 궁궐의 높다란 용마루가 우뚝 솟아 있고, 그 모두가 석양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처럼 근교에서 왕도를 돌아보는 사례가 많았음은 이 시의 첫째 구절과 둘째 구절에서 고사를 인용한 것에서 엿볼 수가 있다.

즉 "파수에서 장안을 바라본다"는 것은 王粲(177-217)이 지은 "南登 陵岸, 廻首望長安"(남쪽으로 파릉의 기슭에 올라 / 고개 돌려 장안을 바라본다)라는 시의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池榮在: 227).

또 이는 한나라 때 장안 사람들이 손님을 배웅할 때에는 근교를 흐르는 파수까지 나와서 강가의 버들을 꺾어 작별했던 풍습을 읊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양에서 수도를 쳐다본다"는 것은 潘岳(247?-300)의 시구인 "引嶺望京室"(고개를 빼어 수도를 바라본다)에서 따온 것이다.[9]

이런 점에서 보면 景은 원래 자연경관이 아니라 도시경관에서 출발한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10]

2. 景의 多義的 意味

서울 하늘 높이 해가 뜨고 그 햇빛 아래 반짝이는 왕궁의 모습을 가리키던 景은 햇빛이 온 누리를 비치듯, 왕성 안에 집들이 늘어나 가득 차듯 점차 그 뜻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옛날 사전인 『說文解字』에는 景을 햇빛, 日光으로만 풀이하고 있지만, 현대의 사전인 『辭海』를 찾아보면 景의 뜻이 여럿임을 볼 수 있다.

景은 1)햇빛(日光) 이외에도, 2)우러러본다(慕), 3)크다(大), 4)완상할 만한 形色, 5) 본받는다(象), 6)멀다(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景은 공연예술형식으로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니 7) 연극의 장면을 세는 단위, 8) 연극이나 영화의 背景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를 하나씩 상세하게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햇빛

景이 햇빛(日光)이라는 것은 앞에서 잠시 설명한 대로 해가 궁전 위에 높이 떠 있는 상형에서 전주된 것이다.

햇빛이 맑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어느 곳에든 항상 밝겠지만, 그 해가 화려한 궁전 위에 높이 떠 있게 되면 해와 궁전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 북돋움으로써 햇빛이 더 빛나고, 그 궁전이 더 반짝인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景光이라는 말은 상서로운 빛(祥光)을 강조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궁전이 남향할 때 가장 햇빛을 잘 받으니 景風이라는 말은 南風일 뿐 아니라 南向을 뜻하기도 한다(辭海: 643).

2) 우러러본다

이와 같이 햇빛 아래 화려한 궁궐이 반짝일 때, 사람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해 자체가 아니라 궁궐이다. 그것은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고 높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 만큼 우러

9) 潘岳은 중국 서진 시대의 시인 겸 문인이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렀고, 또 미남이었다고 한다. 철저한 기교주의자로서 정서적 표현에 뛰어났으며, 감각적인 애상시와 산수시의 걸작을 남겨 놓았다.

10) 한편 서양의 landscape이라는 말은 농촌경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 대비가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J.B. Jackson (1984: 3-8)을 참조하라.

러 보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景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尊慕라는 뜻이다(辭海: 643).

3) 크다

궁궐 자체가 다른 건축물보다 워낙 클 뿐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게 되면 실제보다도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景을 大로 풀이하는 용례는 『詩經·小雅·車舝』이라는 시에 나오는 "高山仰止, 景行行止(높은 산은 우러러보는 것이며/ 길은 큰길을 가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李基奭·韓百愚 역주, 1984:416).

한양의 여러 궁궐 중에서 가장 으뜸인 景福宮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景을 풀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이 景福의 뜻은 큰복이다. "靖共爾位 好是正直 神之聽之 介爾景福(그대가 맡은 일을 삼가면서 마음 곧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신께서도 어여삐 여겨 그대에게 큰복을 내리시리라)"라는 옛글에서 따온 말이고, 궁궐의 이름이 된 말이다. 이 구절은 『詩經·小雅·小明』이라는 시에서 따온 것이다(李基奭·韓百愚: 387).

4) 즐기면서 볼 만하다

이처럼 밝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크며 우러러보게 되는 궁궐의 생김새는 그냥 보아 넘길 단순하고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완상할 만한, 즐기면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비범한 수준의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아름답다' 또는 '보기좋다'라는 개념이 景에 내포된다. 金天澤의 시조를 읊어보면 바로 이런 뜻을 잘 살리고 있다.

강산 좋은 景을 힘센 이 다툴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소니
진실로 금하리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이런 뜻은 景 한 글자만으로써도 표현되지만, 景致·景槪·景光·景色·景趣·風景 등 다른 글자와 합한 단어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5) 본받을 만하다

이처럼 보기 좋은 景은 소극적으로 보고 즐기는 완상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본받을 기준이 된다. 자연의 뛰어난 경치를 본받아 원림을 꾸민다든지 하는 조경의 근본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글씨나 그림을 복사하는 일을 影印이라고 하지만 景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6) 멀다

이 밖에도 景은 "멀다"라는 뜻이 있으니, 『詩經·邶風·二子乘舟』라는 시에 나오는 "二子乘舟, 汎汎其景(두 아들이 배를 탔네/ 범연히 멀어져 가네)"라는 구절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李基奭 韓百愚:99).

멀다는 뜻은 경관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으나, 計成의 『園冶 借景』에서 보듯 원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경관은 遠景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뜻 역시 중요하다.[11]

7) 한 단락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는 연극의 흐름을 분절할 때 幕과 場으로서 구분하는데, 중국에서는 場이라는 말 대신에 景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서 幕은 극장의 무대를 가리는 막이 오르내림을 계기로 하여 큰 단락을 짓는 단위임에 비해서, 景은 어떤 막 중에서 무대 정경의 변화가 없는 채 구분되는 한 장면을 가리킨다.

아울러 연기자의 동작이 일어나는 무대의 뒤편에 꾸며 놓은 장치로서 연극의 내용을 뒤받치는 경관이 주제가 되는 것을 景이라고도 한다. 이 점은 서양연극의 背景인 scenery가 나중에 일반 경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Yi-Fu Tuan, 1974: 133).

11) 計成은 『園冶·借景』에서 "무릇 원림에서는 차경이 가장 중요하다(夫借景 園林之最要者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차경이라는 것은 원림이 비록 공간적으로는 안팎이 구별되지만 경관을 얻는 데에는 원근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원림에서 밖을 쳐다 볼 때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속된 것은 곧 가려 버리고 좋은 것은 곧 받아들인다(借者 園雖別內外 得景則無拘遠近 …極目所至 俗則屛之 嘉則收之)"라고 하여 차경의 본질이 원경을 이끌어오는 遠借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어원 및 어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景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햇빛의 존재가 전제되며, 이는 인간이 무엇을 본다라는 행위를 반드시 수반한다. 夜景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역시 완전한 암흑이 아니고 등불의 빛이 있는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景에는 사실상 觀이라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景觀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

햇빛은 빛의 원천이니 사물을 밝게 비추어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景의 觀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그 자체는 무색이지만 사물에 고유한 빛깔을 내게 해주므로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원인이다.

게다가 햇빛은 만물을 생육하는 근원이 된다. 즉 환경 또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적 존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景은 환경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景으로서 인식되는 대상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것에 국한한다. 다시 말해서 주변의 사물과 비교할 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만을 景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景은 그냥 햇빛 아래에서 보여지는 외계의 생김새가 아니고, 볼 만 하다, 보기 좋다라는 미적 가치판단이 개입된 경치인 것이다.

3) 景이 형상하는 언덕 위의 궁궐처럼 인간이 보고 즐기는 대상과 보는 인간사이에는 상당한 물적·심리적 거리가 설정된다. 이 점은 경관이 환경과 다르다는 현대적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심리적 거리 때문에 實體이기보다는 실체의 이미지이지만, 물적 거리 때문에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우러러본다는 것과 멀다는 것을 종합하면 경은 아래쪽에서 위쪽을 쳐다보는 仰視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遠景을 기본적 구도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景이 공연예술에서 구분할 수 있는 한 場面, 또는 일정한 내용에 맞추어 고정되어 있는 背景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보는 사람이 어느 지점에 서서 쳐다 볼 때 시야에 들어오는 외계의 모습이라는 경관의 정통적 개념과 일치한다. 그 뿐 아니라 景과 인간 사이에는 물적 심리적 거리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일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극이 공연되는 공간적 구조가 한정된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景은 다분히 어떤 틀 사이로 보는 通景(vista)이든지, 원경의 끝 부분을 강조하는 端景(terminus)와 관련된다.

3. 景과 조합된 複詞

그러면 이와 같은 어의를 가진 景과 비슷하거나, 景을 도와 유사한 개념을 형성하는 글자들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문법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품사를 이루는 것을 單詞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것은 複詞라고 한다. 고대에는 주로 단사가 많고 복사가 적었다가 점차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복사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사상이 복잡하고 미묘해졌기 때문이라고 하겠다(洪寅杓,1976: 18).

景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사실 景 하나만으로서도 의미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어 또는 수식어와 함께 보다 미묘한 心像을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1) 光

먼저 보아야 할 글자는 아마도 光일 것이니, 이는 일광을 뜻하는 景의 원 뜻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이다. 光자는 "어진 사람(儿)이 불(火)을 치켜들고 사방을 비추는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서(동아새한한사전, 249: 權智庸: 54), 『說文解字』에는 '밝다'(明)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辭海』에서는 밝다는 뜻 이외에 넓다(廣), 크다(大), 영광스럽다(榮)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 景과 서로 통할 뿐 아니라 대신하여 쓰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李恒福의 시조에 "春光이 덧업신줄 넨들 아니 斟酌ᄒᆞ랴"라는 구절이 있는데(沈載完,1985:271). 여기에서 春光이라는 말은 봄날의 햇빛이 아니라 봄의 경치인 春景을 뜻한

다.

이 밖에도 江의 景을 표현하는 江光이라는 말이나, 山의 景을 표현하는 山光이라는 말을 시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위(1820-1884)의 칠언절구인 「壽春途中」에 나오는 "襪底江光綠浸天(발아래 어리비친 파란 강 경치)"라든지, 최충(984-1068)의 칠언절구에 나오는 "入座山光不速賓(방에 드는 산 경치 불청한 손님)"이나, 草衣의 「遊石湖亭與諸公賦」에 나오는 "刪枝添顯遠山光(가지 쳐내니 먼 산의 경치 더욱 드러나)"라는 구절이다(李炳疇, 1987).

그리고 중국 송대의 郭熙(11세기 초-11세기 말)가 지은 산수화론의 고전인 『林泉高致』에는 "山光水色 滉瀁奪目(산과 물의 경치가 어른거려서 눈을 부시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으니, 光은 그냥 밝은 상태가 아니고 반짝이는 영롱한 景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

다시 말해서 景 대신에 光을 쓰는 까닭은 바로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뜻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봄날의 경치를 만들고 꾸며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햇빛이니, 밋밋한 春景이라는 말보다는 春光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렬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

이는 강의 경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변 언덕에 서 있는 정자에서 굽어보노라면 햇빛을 받아 강물이 '은빛 고기비늘(銀鱗)'처럼 반짝일 때 그 아름다움이 가장 강렬할 것이니 江景이라는 말보다는 江光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景과 光이 모여서 새로운 개념을 이루게 되니, 그것은 光景 또는 景光이다. 光景은 단순히 해와 달(日月)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景況)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서롭고 기이한 빛"(祥異之光彩)이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景의 밝고 빛남을 더 한번 강조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 光은 형용사로서 명사인 景을 수식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한편 景光은 "상서로운(景) 빛(光)"으로 풀이되지만, 대개는 光景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때 景과 光의 문법관계는 역시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관계에 놓인다.

光景이나 景光이라는 말은 특정한 상황을 암시하는 용례가 많으니, 이 점은 景이나 景觀, 또는 景物이 보편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것과 대비된다.

2) 風

다음으로 고찰해 볼 글자는 風景, 風光, 風物 등과 같은 말을 구성하는 風이다. 이 글자는 원래 돛대를 상형하는 凡과 벌레를 상형하는 虫이 회의한 것으로서(權智庸:313), 공기가 널리 펴져 움직임을 따라 동물(생물)이 깨어나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바람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동아새한한사전, 2164). 莊子는 「齊物論」에서 "대지가 내뿜는 숨을 바람이라 한다"(大塊噫氣 其名爲風)라고 풀이하였다.

중국의 고대 商나라 사람들은 사방의 바람마다 모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였는데, 각각 다른 風神이 관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방향이 다른 바람은 그 특색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았으니, 이에 風은 바람이라는 뜻에서 전주하여 지방, 지역, 구역 등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다른 땅들을 가리키게 된다(許進雄,1984:574). 風土·風俗·風習·風味 등이 이와 같은 뜻을 가진다.

그래서 風景은 대체로 景觀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다분히 특색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국지적 경관임을 암시하게 된다[13]. 이런 의미의 용례는 杜甫의 「江南逢李龜年」이라는 칠언절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池榮在, 1989: 359-360).

岐王宅裏尋常見 崔九堂前幾度聞

12) 郭熙는 중국 송나라 때의 산수화가로서 『林泉高致』라는 산수화 이론서를 남겼다. 이 책에는 자연경관을 묘사하는 훌륭한 구절들이 많은 바, 이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구절에 관한 자세한 해석은 黃琪源(1992)을 참조하라

13) 風景은 사람의 모습, 풍채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東亞새漢韓辭典, 2066).

岐王의 집안에서 예사로 보더니 崔九의 집 앞에서 수없이 듣더니
正是江南好風景 落花時節又逢君
정말 이 江南은 風景이 좋구나 꽃지는 시절에 또 그대를 만났구나

또 風光이나 光風이라는 말은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나타나면서 바람이 불면 초목들이 흔들리면서 빛을 받아 반짝이게 되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도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으로 쓰여서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청신한 경관을 가리킨다.

謝朓가 지은 「和徐勉 出新亭渚」(서면이 지은 '산정의 물가에서부터 출발하다)라는 시에 "日華川上動 風光草際浮"(햇살은 시냇물 위에서 움직이고, 풍광은 풀들이 자라는 물가에 떠오른다)라는 구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小尾郊一, 1962: 235).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이 말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景을 뜻하기도 하니 이는 曺植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장시조의 구절인 "仁山智水 오遊ᄒᆞ기 百年安樂ᄒᆞ여 四時 風景이 어이 그지 이시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沈載完, 1985:30).

또 直哉 崔惟淸이 지은 「杏花」라는 한시에 "平生最是戀風光", 즉 "한 평생 풍광을 가장 즐겼나니"라는 구절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風은 바람 자체를 쐬다라는 乘涼 또는 納涼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消風이라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風景·風光·光風 모두 자연 자체의 현상을 '즐긴다'는 뜻과 '상쾌하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 다음은 金三賢의 시조이다(沈載完 :139)

송단에 선즘ᄭᅵ기 취안을 드러보니
석양포구에 나드ᄂᆞ니 백鷗ㅣ로다
어즈버 이 江山風景이야 어닉그지 이시리

나아가서 風에는 태도나 자세, 그리고 좋은 태도인 기품을 가리키게 되니 風格, 風骨, 風貌, 風雅 등이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쓰인다.

또 자연을 즐기는 좋은 태도는 風流라는 말로 써 표현된다. 風景이 이 뜻으로 쓰인 예로서는 金光煜의 시조 구절 중에 "江山閑雅ᄒᆞᆫ 風景다주어 맛다이셔"라는 것을 들 수 있는 바(沈載完: 88), 여기에서 風景은 강산 중에서도 한가롭고 아취가 있는 景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특히 시가나 편액 등에 종종 등장하는 "光風霽月"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光風은 위에서 본 그런 뜻을 빌어서 도량이 넓고 쇄락한 인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霽月은 밝은 달로서 이 역시 비가 개인 후 더욱 밝게 빛나는 상태이다. 光霽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 이 말은 중국의 黃庭堅이 유학자 周敦頤의 인품을 칭송하기 위하여 쓰기 시작하였다.[15]

시가의 예로서는 張經世의 시조 "窓前에 풀이 프ᄅᆞ고 池上애 고기 쒸다/一般生意를 아ᄂᆞ이 긔 뉘런고/ 어즈버 光風霽月 坐上春風이 어제로온듯ᄒᆞ여라"를 들 수 있고(沈載完:58), 편액의 예로서는 전남 담양의 瀟灑園에 있는 두 건물의 명칭인 光風閣과 霽月堂을 들 수 있다.

3) 致

景을 사용한 複詞 중에 자주 쓰는 말로서 '景致'라는 말이 있다. 이 景致라는 말을 구성하는 致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 風致, 韻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뜻과 관련된 옛말로서는 『晉書』에 '高情遠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2) 하는 데까지 다하다(극치)라는 뜻이다. 『禮記』에 "禮也者物之致也"(예는 사물의 극치다)라는 말이 있다.

3) 깊이 궁구한다는 뜻이다. 『大學』에 나오는 "格物致知, 致知在格物"이라는 말처럼 깊이 궁구

14) 光風霽月은 천성이 고명하며 흉중이 맑아서 비개인 뒤의 풍월처럼 맑고 시원하다는 인품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인다. 『宋史 周頤거傳』에 "黃庭堅이 이르기를 주돈이는 그 인품이 매우 고아하고 흉상이 쇄락하여 광풍제월과 같다"라 하였다. 周頤 (1017-1073)는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서, 자는 茂叔, 호는 濂溪이다.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교이론을 창시하였다. 저서에는 『太極圖說』, 『愛蓮說』 등이 있다.

한다는 뜻도 있다.

문법적으로 보면 景致는 致라는 형용사가 景이라는 명사를 도치형으로 수식하는 複詞이다. 따라서 景致는 1)의 뜻을 취하여 "운치가 있는 景", "정취가 있는 景"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2)의 뜻을 취하여 "매우 아름다운 景"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1)의 풀이를 따라 景致를 情景으로 풀이하는 예는 消遙堂이 지은 「暮春」이라는 시에 나오는 "山家景致有何奇"(절집의 경치가 무엇이 기특한고 하니)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臥看花開鐵樹枝"(쇠나무에 핀 꽃을 누워서 바라봄이랴)라는 인간과 경치와의 감응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정취를 제대로 이루게 된다(李炳疇: 247).

한편 2)의 뜻을 따른 풀이와 관련시켜 고찰해 볼 것은 '高致'라는 말이다. 이 말은 『林泉高致』라는 화론서에 나오는데, 이 책은 중국 북송시대인 1121년 郭思가 당대의 저명한 화가인 동시에 이론가인 선친 郭熙가 생전에 지어 두었거나 말로 전한 것을 자신의 주석을 더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이 "林泉高致"라는 말은 '林泉의 높은 韻致'라는 뜻으로 직역되는데, 여기에서 林泉이라는 말은 책의 내용으로 볼 때 庭園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름다운 山水, 아름다운 自然景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름다운 산수의 높은 운치"라는 뜻이다(黃琪源: 1992).

4) 物

物자를 써서 이루어진 관련어로서는 景物과 物外를 들 수 있다. 원래 物이라는 글자는 牛(소)와 勿(깃발)의 회의문자로서 얼룩소를 가리키다가 전주하여 모든 물체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權智庸:199).

物이라는 말을 구성하는 牛가 큰 물체이고 다른 사물들을 둘러쌀(包) 수 있기 때문에 『辭海』에서는 萬物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때 萬物은 낱낱이 구별되는 갖가지 수많은 사물들의 집합이므로 개별성(景物 1)과 총체성(景物 2)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景物이라는 말은 "밝은 햇빛의 힘을 빌어(景)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경물 2), 그 전체를 구성하는 낱낱의 사물(경물 1)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가지 뜻 모두 외계에 있는 온갖 사물의 물적 차원이 강조되어 감각기관으로써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말에는 다른 말처럼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는 뜻이 반드시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風景 등과 같은 景의 본뜻과 서로 통용되기도 한다.

尹善道의 漁父四時詞 중에서 겨울철 설경을 읊은 다음의 시조를 보면, 잡다하게 널려 있던 여러 가지 만물(景物 1)이 눈으로 덮여서 통일된 하나의 경치(景物 2)로 보이며, 동시에 그것을 수많은 유리와 옥구슬(景物 1)이 바다와 산이라는 큰 경(景物 2)을 이룬 것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상찬되고 있는 바, 景物의 두 가지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沈載完:101).

간 밤의 눈 긴 후에 景物이 달낫고야
압희는 萬頃琉璃 뒤희는 千疊玉山
이거시 仙界 佛界ㄴ가 人間이 아니로다

이 밖에도 시가에서 景物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면 許蘭雪軒(1563-1589)의 가사에 나오는 "三春花柳 好時節의 景物이 시름 업다"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또 金昌翕(1653-1722)의 오언고시인 『曉吟』에 "景物日蕭索(온갖 경치 나날이 을씨년스럽다)"라는 구절도 그것이다(李炳疇,1987).

한편 物外라는 말은 속세의 물적 상황을 벗어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세를 器世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릇 器는 곧 物이므로 物外는 현세를 벗어난 곳이다. 그래서 物外는 世外, 物表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두루 쓰인다. 아마도 다음에 설명할 境의 개념과 상통할 것이다.

이 말도 시가에서 종종 쓰인다. 安瑞羽의 시조를 보면 人間이라고 표현되는 현세 내지 속세에 대응하여 物外라는 말을 쓰고 있다(沈載完:127).

人間의 벗 잇단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物外에 벗 업단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분인가 ᄒᆞ노라

人間의 風雨多ᄒᆞ니 므스일 머ᄆᆞᄂᆞ뇨
物外에 烟霞足ᄒᆞ니 므스일 아니가리
이제는 가려 定ᄒᆞ니 逸興계워 ᄒᆞ노라

또 윤선도의 漁父四時歌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沈載完, 1985:98).

物外에 조흔 일이 漁父生涯 아니런가
漁翁을 웃지마라 그림마다 그럿더라
두어라 四時佳興이 ᄒᆞᆫ가지나 秋江이 웃듬이라

이 밖에 物色라는 말이 경치, 풍경을 뜻하기도 한다. 이 말을 구성하는 色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설명이 나온다. 物華도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다.

5) 概

한편 景概라는 말에서 概는 경물이나 상황을 뜻한다. 문법적으로 景概는 유사한 명사가 병렬형으로 조합되는 복사이다.비슷한 뜻으로서 風概라는 말도 쓰인다.

杜甫의 시에 "勝概憶桃源"(빼어난 경치가 도원을 생각나게 하네)라는 구절에서 쓰인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별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경치를 뜻하기도 한다.

그 예는 조선조 후기에 지어져서 구전되는「遊山歌」의 한 구절인 "써조타 벗님네야 山川景概를 구경가자"에서 볼 수 있다. 또 영조대의 金兌錫이 지은 다음 시조를 보면 景概는 산에 올라 내려다 볼 때 눈 앞에 펼쳐지는 展景(panoramic view)을 가리키기도 한다(沈載完:124).

花山에 有事ᄒᆞ야 西岳寺에 올나오니
十里江山에 恨업슨 景概ㅣ로다
아희야 盞ᄌᆞ로 부어라 놀고가자 ᄒᆞ노라

6) 勝

또 勝景, 景勝, 勝塏, 勝概, 勝地, 勝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勝은 이기다, 더 낫다라는 뜻에서 전주하여 아름답다라는 뜻이 생기면서 '경치가 특히 좋은 곳'을 가리키니, 이것도 같은 뜻의 명사가 병렬형으로 조합된 복사이다.

특히 勝地는『鄭鑑錄』에서 피란·보신의 터전으로 제시한 十勝地라는 용어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려한 경관보다는 빼어난 환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金天澤이 지은 다음 시조에서는 아름다운 경치,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沈載完:142).

白鷗야 말무러보자 놀나지 마라스라
名區勝地를 어듸어듸 보왓ᄂᆞᆫ다
날ᄃᆞ려 仔細이 일너든 너와 게가 놀니라

한편 景과 勝을 구태여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규모로 보아서 큰 것을 勝이라고 하고, 작은 것을 景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다(崔杞秀, 1989: 58).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극에서 큰 단락을 幕, 작은 단락을 景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景이 작은 단위를 가리킴은『林泉高致』에서 "畵山水有體 鋪舒爲宏圖而無餘消縮爲小景而不小"(산수를 그리는 데는 법식이 있으니, 펼쳐 늘여서 큰 그림으로 그려도 남음이 없고, 줄여서 작은 경으로 그려도 짜임새는 작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 산수화를 그리는 요결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그 짜임새는 작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7) 色

다음은 色으로서 이 글자의 유래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ㄅ(人)과 巴(무릎마디)가 모인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 움직임이 마치 무릎마디가 잘 들어맞듯 얼굴에 바로 나타난다 하여 '얼굴빛'을 상형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ㄅ(수컷)과 巴(꽁무니)가 모인 자로서, 수컷이 암컷 꽁무니에 머무르는 발정기에는 몸에 윤이 난다 하여

'빛깔'을 지사한다는 것이다(權智庸: 250).

『辭海』에서는 얼굴빛(顔氣), 아름다운 빛(采色), 남성의 눈에 비친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女色)을 뜻한다. 그래서 景色이라는 말은 景致라는 것과 같은 말로 쓰인다. 그러나 색채가 보다 더 화려하거나 다채로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色은 근본적으로 햇빛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할 수 있고 또 변화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의 色, 다채로운 景色은 이 햇빛과 더불어 달과 별의 출몰, 비·바람·안개·무지개 등과 같은 기상의 변화, 그리고 생물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할 수 있고 또 변화할 수 있다.

計成은 『園冶·借景論』에서 應時而借라고 하여 이러한 景色의 변화를 활용하는 借景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로서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景色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조각조각 떨어져 날아다니는 꽃잎"(片片飛花)라든지, "바람이 불어 마치 고기비늘처럼 일렁이는 물결"(水面鱗鱗)라든지, "단풍의 붉은 색이 얼굴에 반사되니 마치 술에 취한 기분"(醉顔幾陣丹楓)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좋은 예이다(計成, 1634: 黃琪源, 1994,78—82).

Ⅲ. 結 論

景觀은 대상인 景과 보는 행위인 觀이라는 말이 모여서 이룬 複詞이다. 현대에는 景觀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景이라는 단사와, 光, 風, 致, 物, 槪, 勝, 色 등 유사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單詞와 합쳐서 여러 가지 複詞를 만들어 사용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景의 뜻을 살펴보면 1)햇빛이라는 뜻이 있어 이미 인간이 무엇을 본다라는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고 있어 景觀이라는 개념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햇빛은 만물을 생육하는 근원이므로 景은 환경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景으로서 인식되는 대상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것에 국한한다 즉 景은 볼 만 하다, 보기 좋다라는 미적 가치판단이 개입된 경치인 것이다.

3) 景은 인간이 보고 즐기는 대상과 보는 인간 사이에 상당한 물적·심리적 거리가 설정한다.

4) 景이 공연예술의 한 場面, 또는 背景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光은 바로 빛 자체이므로 景과 가장 밀접하다. 그래서 春光이나 山光처럼 景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서 光은 그냥 밝은 상태가 아니고 반짝이는 영롱한 景을 가리킨다.

景과 光이 모이면 光景 또는 景光이라는 개념을 이룬다. 光景이나 景光은 景의 밝고 빛남을 더 한번 강조하는 뜻으로 풀이되며,특정한 상황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風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에서 전주하여 지방, 지역, 구역 등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다른 땅들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風景은 다분히 특색이 있고 실재하는 국지적 경관임을 암시한다.

또 風光이나 光風이라는 말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청신한 경관을 가리킨다. 나아가서 이 말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景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風景·風光·光風 모두 자연 자체의 현상을 '즐긴다'는 뜻과 '상쾌하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

나아가서 風에는 태도나 자세, 그리고 좋은 태도인 기품을 가리키게 되니 風格, 風骨, 風貌, 風雅 등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기는 좋은 태도는 風流라는 말로써 표현된다.

景을 사용한 複詞 중에 자주 쓰는 말은 '景致'라는 말이다.이 말은 "운치가 있는 景", "정취가 있는 景"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매우 아름다운 景"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物자를 써서 이루어진 관련어로서는 景物과 物外를 들 수 있다. 景物은 "밝은 햇빛의 힘을 빌어(景)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전체를 구성하는 낱낱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종종 風景 등과 같은 景의 본뜻과 서로 통용되기도 한다. 한편 物外라는 말은 속세의 물적 상황을 벗어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밖에 物色라는 말이 경치, 풍경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景槪라는 말에서 槪는 경물이나 상황을 뜻한다. 문법적으로 景槪는 유사한 명사가 병렬형으로 조합되는 복사이다. 비슷한 뜻으로서 風槪라는 말도 쓰인다. 또 이것은 展景(panoramic view)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 勝景, 景勝, 勝塏, 勝槪, 勝地, 勝致라는 말이 있는데, '경치가 특히 좋은 곳'을 가리킨다. 특히 勝地는 피란 보신의 터전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景과 勝을 구태여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규모로 보아서 큰 것을 勝이라고 하고, 작은 것을 景이라고 구분한다. 景色이라는 말은 景致라는 것과 같은 말로 쓰인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景觀을 연구함에 있어 景과 觀을 일단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상과 행위를 구분하자는 것인데, 이는 景이라는 대상이 인간의 지각행위가 없더라도 저절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둘째, 景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온 傳統 造景을 연구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景觀 연구에 있어 구체적인 경관 자체에 대한 연구에 못지 않게 文學이나 造形藝術에서 착안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計成(1634)「木經全書」, 隆盛堂, 서울: 도서출판 造景社, 1990 영인).
2. 高敬植, 金濟鉉(1988)「時調·歌辭論」, 서울:예전사.
3. 權智庸(1976)「部首活用 基礎漢字明解」, 서울: 修智書林.
4. 金芳漢(1990)「語源論」, 서울:民音社.
5. 小尾郊一(1962)「中國文學과 自然美學」, 尹壽榮 역, 서울:도서출판 서울(1992).
6. 沈載完(1985) 편저,「古詩調 千首選」, 서울:螢雪出版社.
7. 李基奭, 韓百愚(1984) 역주,「詩經」, 서울:弘新文化社.
8. 李炳疇(1987)「韓國 漢詩의 理解」, 서울:民音社.
9. 儲椒生, 陳樟德(1988) 편저,「中國造景圖說」,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0. 張家驥(1985)「中國造園史」, 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
11. 鄭良謨(1986) 감수,「謙齋 鄭敾」, 서울:中央日報社.
12. 池榮在(1989) 편역,「中國詩歌選」, 서울:乙酉文化社.
13. 許進雄(1984)「中國古代社會: 文字와 人類學의 透視」, 洪熹 역, 서울:東文選, 1991
14. 洪寅杓(1976)「漢文文法」, 서울:新雅社.
15. 彭一剛(1989)「中國古代 庭園林의 分析」, 金鍾太 역, 서울:文化財管理局.
16. 崔杞秀(1989) "한국 경관 의미에서 조명해 본 한국의 전통경관: 曲과 景을 중심으로",「韓國造景學會誌」, 17(2):57-68.
17. 黃琪源(1989)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韓國造景學會誌」, 17(1):55-68.
18. 黃琪源(1992) "郭熙의『林泉高致』에 나타난 自然觀",「環境論叢」, 30:152-191.
19. 黃琪源(1994), "『園冶·興造論』 연구(2): 因借論을 중심으로",「環境論叢」, 32:40-89.
20. 王筠(清)(1987)「說文解字句讀」, 北京:中華書局.
21. 東亞出版社(1990)「東亞새漢韓辭典」, 서울.
22. 香港:中華書局 分局(1947)「辭海」.
23. 中國旅游出版社(1991)「山水詩歌鑒賞辭典」, 北京.
24. 書海出版社(1990)「詩詞典故辭典」, 太原.
25. 華文出版社(1990)「中國書畵辭典」, 北京.
26. Skeat, W. W.(1983)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7. Jackson, J. B.(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8. Hu, D. C.(1991), *The Way of the Virtuous: the Influence of Art and Philosophy on Chinese Garden Design*, Beijing: New World Press.
29. Tsu, F. Ya-Sing(1988) *Landscape Design in Chinese Gardens*, New York:McGraw-Hill Book Co.
30. Tuan,Yi-Fu(1974) *Topophili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